

구술자료 상세목록

사업명	미추홀, 살아지다1 ‘신기촌 사람들’				
구술자명	김종린	면담자	박성희, 이의록, 조영숙, 유인숙		
면담장소	신기시장 상인회 사무실	면담지원	-		
면담 일시	2018년 7월 31일(화), 8월 14일(화)	회차	2	시간	14분 49초, 8분 58초
자료번호	MichuholCA-07-00001162				
구술 개요	신기촌 일대는 과거 화장터, 중국인 밭이 있었음. 진흥요업 후문 일대에서 시장이 시작됨. 동인천 일대 재개발로 인한 이주민이 신기촌으로 유입됨. 서부시장, 중앙시장, 남부시장이 합쳐져 신기문화관광시장이 됨. 공식적으로 신기시장이 탄생한 것은 75년도. 진흥요업은 지역에서 가장 큰 회사였음. 진흥요업 후문 앞으로 5번 버스 종점이 있었음. 시장이 형성될 때 들어와 37년째 살고 있음.				
주요 색인어	신기촌, 화장터, 중국인밭, 진흥요업, 신기시장, 중앙시장, 서부시장, 남부시장, 상권, 동인천, 재개발, 신기문화관광시장, 진흥도자기, 돌산, 중앙도자기				
구술 상세목록 내용			시간	관련 파일(비공개)	
1. 과거 신기촌 일대의 모습			음성 1 00:00:00~ 00:03:51	▷ 음성파일	
- 과거 화장터, 중국인 밭이 있던 지역. - 문학동, 선학동, 연수동에서 난 농산물을 진흥요업 후문 일대에서 팔며 신기시장이 형성됨. - 신기시장 다음으로 중앙시장, 서부시장이 오래됨. 남부시장은 가장 최근에 인위적으로 만든 시장임. - 시장이 활성화되어야 지역의 상권이 살아남.					
2. 신기촌의 어원			음성 1 00:03:52~ 00:06:28		
- 새 신(新)자, 일어날 기(起)자를 사용하여 '새로 일어나라'는 뜻을 가지고 있음. - 신기촌은 주안3동, 7동, 8동 일대를 가리킴. - 맨 처음 서부동이 주안3동으로 분리되고, 3동에서 7동, 7동에서 8동이 분리됨. - 동인천 재개발로 인한 이주민을 신기촌 일대로 보내고 땅을 10평씩 줌. - 신기촌 활성화사업(재개발) 때 따로 길을 내지 않고 10평에 건물을 다 지을 수 있게 함.					
3. 신기문화관광시장			음성 1 00:06:29~ 00:10:23		
- 골목 안으로 조그맣게 있는 곳은 서부시장임.					

- 진흥요업(구 진흥도자기) 후문 쪽의 초소(망루) 일대에서 신기시장이 형성됨. - 서부시장, 중앙시장, 남부시장이 합쳐져 신기문화관광시장이 됨.		
4. 신기시장의 기원		
- 75년에 공식적으로 생겨남. 10~20년 동안 장사를 하다가 번영회를 만든 것이기 때문에 실제 시작은 더 이전임. - 처음부터 번영회 일을 하다 보니 (신기시장에 대해) 잘 알고 있음. - 신기시장 뒤쪽의 10평짜리 신동아 단지는 과거 돌산이었음.	음성 1 00:10:24~ 00:14:49	
5. 신기시장의 역사		
- 신기촌 자체가 철거민들로 형성된 곳. 과거 화장터, 돌산, 중국인 발이 있던 지역. - 68년에 동구에서 철거민들이 이주해 옴. - 신기촌이라는 이름도 새 신(新), 일어날 기(起)라는 뜻으로 지어진 것. - 진흥요업(구 중앙도자기, 진흥도자기)은 지역에서 가장 큰 회사로, 토착민과 철거민할 것 없이 진흥요업에 다님. - 5번 버스 종점이 있었던 진흥요업 후문 일대로 문학, 선학 지역의 논밭에서 농사지은 것을 팔기 시작하면서 시장이 형성됨. - 신기시장이 정식으로 등록된 것은 75년도.	음성2 00:00:00~ 00:05:38	
6. 마무리		
- 시장이 형성될 때 들어와 37년째 살고 있음. - 초창기 통장, 구의원을 했던 참피온 체육사를 다음 인터뷰이로 추천함.	음성2 00:05:39~ 00:06:15, 00:07:20~ 00:08:58	